

11월 2주 TV 시청률

Date : 2007 . 11 . . .

시청률 자료 : TNS Media Korea TV Research 수도권 시청률

■ 시청률

일자 : 11-5 부터 11-11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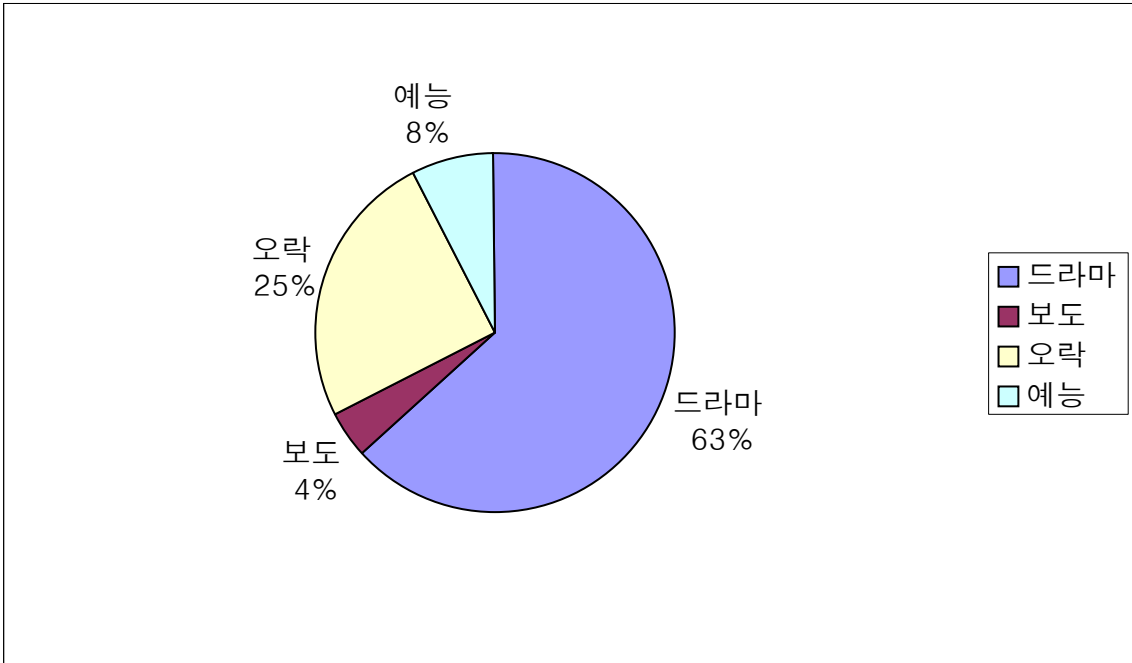
	개별 주간 시청률	방송사	시청률	백분율	분야
1	특별기획드라마<태왕사신기>	MBC	31.4	7.9	드라마
2	일일연속극<미우나고우나>	KBS1	29.6	7.5	드라마
3	대하드라마<대조영>	KBS1	29.3	7.4	드라마
4	주말연속극<며느리전성시대>	KBS2	26	6.6	드라마
5	대하사극<왕과나>	SBS	23.7	6.0	드라마
6	무한도전	MBC	23.7	6.0	오락
7	특별기획드라마<이산>	MBC	23.2	5.9	드라마
8	주말극장<황금신부>	SBS	22.3	5.6	드라마
9	일일연속극<아현동마님>	MBC	20.2	5.1	드라마
10	황금어장	MBC	17.4	4.4	오락
11	KBS뉴스9	KBS1	16.7	4.2	보도
12	순간포착세상에이런일이	SBS	16.2	4.1	예능
13	해피투게더	KBS2	16.1	4.1	오락
14	특별기획<조강지처클럽>	SBS	15.1	3.8	드라마
15	금요드라마<아들찾아삼만리>1부	SBS	14.8	3.7	드라마
16	해피선데이	KBS2	14.3	3.6	오락
17	금요드라마<아들찾아삼만리>2부	SBS	14.1	3.6	드라마
18	비타민	KBS2	14	3.5	예능
19	상상플러스	KBS2	14	3.5	오락
20	생방송TV연예	SBS	13.5	3.4	오락
	합계		395.6	100.0	

태왕사신기가 30% 이상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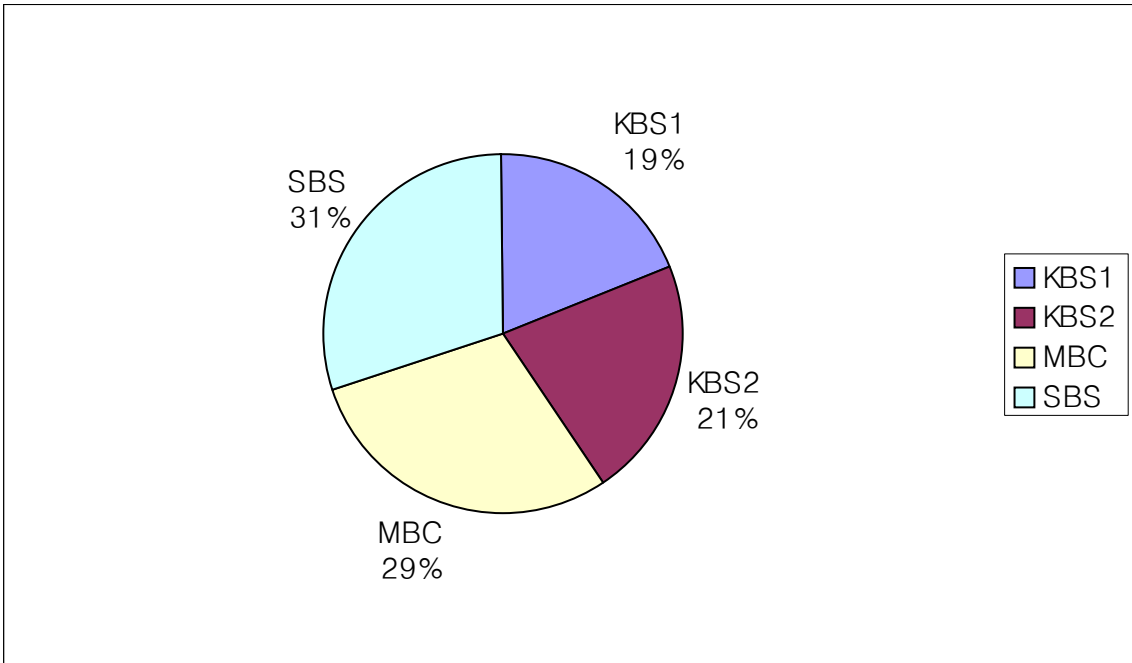
그 뒤로는 일일극 미우나 고우나, 사극 대조영이 2, 3위를 차지하며 며느리전성시대, 왕과 나가 4, 5위로 차지했다. 전체적으로 드라마의 강세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무한도전은 6위를 차지하며, 꾸준한 인기를 끌면서 참여 개그맨들의 인기를 재 생산시키고 있다. 그 외에 보도부분으로 KBS뉴스9가 11위를 보이며 유일한 보도부분 프로그램으로 그 맥을 유지했다.

■ 장르 및 방송사별 점유율



드라마는 3주 연속 60%가 넘는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 대체로 정치적 이슈가 높아지면 보도나 관련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는데 반하여 지금은 사극의 여파로 드라마에 대한 집중도가 더욱 높아지는 모습이다.



방송사는 2주 연속 SBS가 1위 차지하며 MBC, KBS2, KBS1순의 점유율을 보였다.